

#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에 대한 종단적 영향 분석\*

김진희\*\*

## 초 록

본 연구는 경기교육중단연구(GEPS)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종단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값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변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선형변화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은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과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GEPS

## I.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명시되어 있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

\* 이 논문은 제7회 경기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된 내용에서 인격의 도야와 자주적 생활 능력은 ‘전인적 성장’으로,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격변하는 시대와 사회는 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하지만, 전인적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은 영속적 교육 이념이어야 한다. 이에 학교가 전인적 성장과 시민의식의 함양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은 학생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성장신념으로 예측할 수 있다. Dweck(2000)에 의하면 성장신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변화하거나 향상될 수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믿음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르게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생각과 느낌,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만든다(Dweck 2000, 류재준 2018:18 재인용). Dweck & Leggett(1988)가 밝힌 성장신념의 속성인 인지능력의 영속적 기대(entity)와 성장 가능성(incremental)에 따르면, 성장신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이 불변하거나 향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반면, 성장신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이 변화 가능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자의 경우를 성장신념을 가진 사람, 후자의 경우를 고정신념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신념은 전인적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민주 시민의식 함양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시민 의식이란 참여와 자원봉사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공동체 개선을 지향하는 태도(Ross 2007, 광미정·문신용 2010 재인용)를 의미한다. Marshall(1977)에서는 시민의식을 시민적 시민의식(civil citizenship), 정치적 시민의식(political citizenship), 사회적 시민의식(social citizenship)으로 구분하고 있다(황윤주 2001:31). 시민의식은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특히 국제화와 개방화라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도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하다. 시민의식은 개인이 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의식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에 참여하는 역할까지 포함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교 교육에서는 ‘독서 활동’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국어 교과에서 선택 과목으로 ‘독서’ 과목이 신설

되었으며, 모든 학교 급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 추가되었다.

독서 활동은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 경험, 맥락 등을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독자는 글을 읽으며 자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글을 매개로 필자와 사회적으로 소통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여가를 선용하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아왔다(오길주 2019). 청소년에게 있어 독서 활동은 통해 다양한 삶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며 바람직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행위이다. 즉 독서 활동은 자아 정체성을 탐색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독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독서 행위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기대를 학습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자질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성장신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신념과 독서활동의 관계, 독서활동과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신념과 독서활동의 관계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오길주(2019)에서는 능력 성장의 믿음, 회복 탄력성, 내재적 동기, 끈기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 그릿(Grit)과 독서 능력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릿과 독서가 역량과 특성으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서로 잘 적용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융합적 시너지를 살릴 수 있으며, 또한 그릿이 독서능력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독서능력이 성장하면 그릿 또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임성관(2016)에서는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성장을 위한 독서 심리 코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쉼터 청소년의 자기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김가을하늘(2017)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와 자기성장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치유와 자기성장의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독서활동과 시민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수호(2014)에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비판적 독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모형을 구안하였다. 민수빈·박해인·김이경(2019)에서는 중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

생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진로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김미희·김성훈(2017)에서는 경기 초중등학생의 시민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면서 학생 수준의 요인으로 독서활동 요인이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의식을 위한 다양한 독서 경험 및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밝힌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구조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변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논의는 없었다. 각 변인들 간의 종단적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도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종단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문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3.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고는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교육정책 수립 및 성과 분석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 주체(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등)의 교육활동 양상을 추적 조사한 경기교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이하 GEPS) 자료의 4차

(2015학년도, 중1), 5차(2016학년도, 중2), 6차(2017학년도, 중3)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고에서 활용한 자료의 표본은 4차부터 6차년도까지 모두 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표본 수는 3,924명이다.

## 2. 측정 도구

### 1) 성장신념

성장신념은 GEPS의 학생 설문 중 자기 자신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GEPS의 성장신념에 대한 3개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평균값을 활용 하였으며, 성장신념의 문항 내용 및 문항 내적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성장신념의 변인 구성

변인	내용	신뢰도
성장신념	능력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826(4차)
	시간이 지나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818(5차)
	노력을 해도 나의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774(6차)

### 2) 독서활동

독서활동은 GEPS의 학생 설문 중 자신의 독서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GEPS의 독서활동에 대한 9개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평균값을 활용 하였으며, 독서활동의 문항 내용 및 문항 내적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독서활동의 변인 구성

변인	내용	신뢰도
독서활동	책을 선물 받을 때 기쁘다.	.855(4차) .843(5차) .828(6차)
	매일 신문을 읽는다(인터넷 신문 포함).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독서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는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 왔다.	
	독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책을 끝까지 읽기가 어렵다.	
	잠시도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	

### 3) 시민의식

시민의식은 GEPS의 학생 설문 중 자신의 시민 의식을 묻는 문항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GEPS의 시민의식에 대한 17개 문항에 대하여 응답한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시민의식의 문항 내용 및 문항 내적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시민의식의 변인 구성

변인	내용	신뢰도
시민의식	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73(4차) .882(5차) .897(6차)
	나는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같은 동네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예: 교통질서)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해도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모른 채한다.	
	어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변인	내용	신뢰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이 타면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한다.	
	누가 길을 물으면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	
	내 일이 아니면 대충 한다.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 슬쩍 빠져나온 적이 있다.	

### 3.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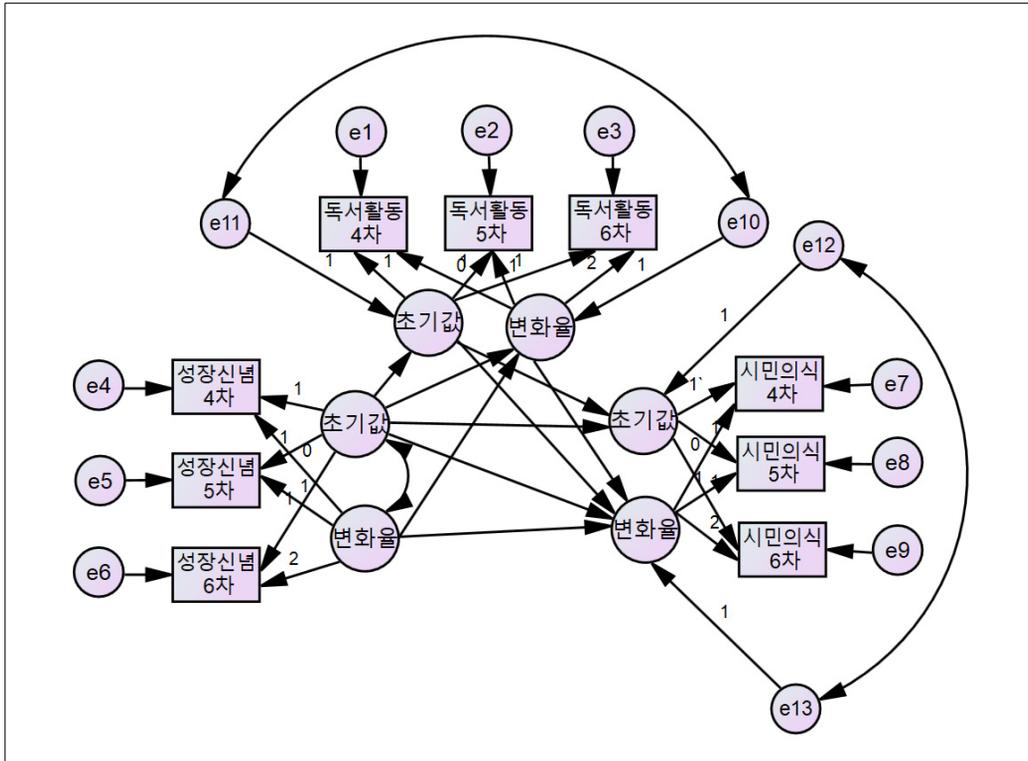
먼저 GEPS에서 4차부터 6차년도의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주요 변인 간 초깃값과 변화율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GEPS의 중학생 자료에서 4차부터 6차년도에서 측정된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문항을 바탕으로 잠재변인을 구성한 뒤, 각 변인별 해당 년도에 측정된 자료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구분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선형변화모형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초깃값과 변화율을 근거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성장 궤적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고는 연구 모형 분석에 앞서 자료의 결측치 처리를 위하여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완전 정보 최대우도법(FIML)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위하여  $\chi^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과 같은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로 TLI와 CFI는 .9이상, RMSEA가 .05 이하를 좋은 적합도로,

.08이하를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모두 4차년도(중1)에서 6차년도(중3)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값이 3 미만, 첨도는 절대값 8 미만으로 정규성이 충족되었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모형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계	표준오차	통계	표준오차
1. 성장신념(4차)	3.82	0.89	-.58	.04	.08	.08
2. 성장신념(5차)	3.71	0.93	-.57	.04	.09	.08
3. 성장신념(6차)	3.57	0.89	-.40	.04	.15	.08
4. 독서활동(4차)	2.88	0.77	.09	.04	-.41	.08
5. 독서활동(5차)	2.85	0.76	.16	.04	-.30	.08
6. 독서활동(6차)	2.82	0.74	.17	.04	-.25	.08
7. 시민의식(4차)	4.03	0.52	-.40	.04	-.05	.08
8. 시민의식(5차)	4.03	0.54	-.51	.04	.23	.08
9. 시민의식(6차)	4.00	0.56	-.56	.04	.19	.08

p<.001\*\*\*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각 연도별 상관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은 모두 이전 시점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변인	1. 성장 신념 (4차)	2. 성장 신념 (5차)	3. 성장 신념 (6차)	4. 독서 활동 (4차)	5. 독서 활동 (5차)	6. 독서 활동 (6차)	7. 시민 의식 (4차)	8. 시민 의식 (5차)	9. 시민 의식 (6차)
1	1								
2	.707***	1							
3	.646***	.726***	1						
4	.162***	.106***	.102***	1					
5	.107***	.107***	.100***	.451***	1				
6	.092***	.104***	.093***	.397***	.493***	1			
7	.405***	.279***	.233***	.335***	.254***	.216***	1		
8	.273***	.377***	.271***	.223***	.249***	.195***	.583***	1	
9	.235***	.300***	.351***	.178***	.161***	.201***	.519***	.616***	1

p<.001\*\*\*

## 2. 연구 결과

### 1)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의 무변화 모형과 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초깃값을 1로 설정함으로써 3년 동안 변인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변화 모형은 변화율을 0, 1, 2로 설정함으로써 3년이라는 3년 동안 선형으로 변화하였음을 가정한 모형이다.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변인의 무변화 모형과 변화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 모두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는 양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변인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비교

변인	평균	$\chi^2(df)$	CFI	TLI	RMSEA
성장신념	무변화 모형	320.926(4)	.8565	.891	.142
	선형변화 모형	1.395(1)	1	.999	.01
독서활동	무변화 모형	84.740(4)	.986	.990	.072
	선형변화 모형	.043(1)	1	1	.000
시민의식	무변화 모형	90.777(4)	.977	.983	.074
	선형변화 모형	7.974(1)	.998	.994	.042

p<.001\*\*\*

다음으로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 변인의 선형변화 모형에서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 및 분산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세 변인 모두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세 변인 모두 변화율의 평균값은 모두 감소하였다(.127\*\*\*, -.029\*\*\*, -.015\*\*\*). 또한 초깃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한 것은 세 변인의 변화율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초깃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 역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061\*\*\*, -.045\*\*\*, -.013\*\*\*), 이는 초깃값이 클수록 변화율은 적으며, 초깃값이 적을수록 변화율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요 변인의 선형변화 모형에서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 분석, 공분산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선형변화 모형의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 공분산

변인	평균	평균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공분산
성장신념	초깃값	3.828***	.014	.437***	.024	-.061***
	변화율	-.127***	.008	.076***	.011	
독서활동	초깃값	2.877***	.012	.458***	.015	-.045***
	변화율	-.029***	.005	.042***	.006	
시민의식	초깃값	4.035***	.008	.176***	.008	-.013***
	변화율	-.015***	.004	.025***	.003	

p<.001\*\*\*

##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적 관계 검증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이 종단적 관계가 있음을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291.310(df=23)$ , CFI=.970, TLI=.981, RMSEA=.055로 나왔으며, 대체로 좋은 적합도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모형의 적합도

$\chi^2$	df	CFI	TLI	RMSEA
291.310***	23	.970	.981	.055

p<.001\*\*\*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바탕으로 최종 선택한 모형에서 세 변인 간 종단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독서활동의 초깃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96$ \*\*\*,  $p<.001$ ). 이는 성장신념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독서활동의 초깃값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독서활동의 변화율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94$ \*\*\*,  $p<.001$ ). 이는 성장신념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독서활동의 변화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독서활동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37$ \*\*\*,  $p<.001$ ). 즉 성장신념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독서활동의 변화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시민의식의 초깃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60^{***}$ ,  $p<.001$ ). 이는 성장신념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초깃값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71^{***}$ ,  $p<.001$ ). 즉 성장신념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변화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독서활동의 초깃값은 시민의식의 초깃값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24^{***}$ ,  $p<.001$ ). 이는 독서활동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초깃값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독서활동의 초깃값은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39^{***}$ ,  $p<.001$ ). 이는 독서활동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변화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독서활동의 변화율은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4^{***}$ ,  $p<.001$ ). 즉 독서활동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변화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

평균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성장신념 초기 → 독서활동 초기	.196 <sup>***</sup>	.013	.196
성장신념 초기 → 독서활동 변화	-.030 <sup>***</sup>	.007	-.094
성장신념 변화 → 독서활동 변화	.102 <sup>***</sup>	.027	.137
성장신념 초기 → 시민의식 초기	.347 <sup>***</sup>	.014	.560
성장신념 초기 → 시민의식 변화	.006	.007	.028
성장신념 변화 → 시민의식 변화	.353 <sup>***</sup>	.033	.671
독서활동 초기 → 시민의식 초기	.201 <sup>***</sup>	.011	.324
독서활동 초기 → 시민의식 변화	-.031 <sup>***</sup>	.007	-.139
독서활동 변화 → 시민의식 변화	.150 <sup>***</sup>	.029	.214

$p<.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경기도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의 매개효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독서활동의 초깃값을 매개로 시민의식의 초깃값에 대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독서활동의 초깃값

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또한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독서활동의 변화율을 매개로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독서활동 변화율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독서활동의 변화율을 매개로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독서활동의 변화율은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

〈표 10〉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평균	간접효과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성장신념 초기 → 독서활동 초기 → 시민의식 초기	.039**	.004	.032~.047
성장신념 초기 → 독서활동 변화 → 시민의식 변화	-.011**	.002	-.015~-0.007
성장신념 변화 → 독서활동 변화 → 시민의식 변화	.015**	.005	.007~.028

p<.01\*\*

## IV. 결론 및 제언

### 가. 논의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선형변화 모형을 확인하였으며,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의 매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평균값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변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미나·이진숙(2020), 김진희(2020), 이정민·정혜원(2019)의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에 대한 진단 활동과 이에 따를 적절한 상담 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한 결과, 세 변인 모두 선형변화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의 선형변화 모형을 살펴보면, 3년 동안 평균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세 변인 모두 초깃값과 변화율 간 공분산 역시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보다 변화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성장신념과 관련한 종단 연구로 문병상(2013)을 찾을 수 있다. 문병상(2013)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지능변화 신념의 종단적 변화가 성취목표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장신념과 유사한 지능에 대한 향상관점의 선형변화 모형을 추정한 결과 초깃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아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김진희(2020)에서는 중학생의 독서활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같다. 우명숙(2020)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의 초깃값은 혁신학교 학생이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변화율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이로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중학생의 성장신념, 시민의식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독서활동을 통해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중학생의 성장신념, 독서활동, 시민의식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 지수는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독서활동의 초깃값과 시민의식의 초깃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장신념의 초깃값은 독서활동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장신념의 변화율은 독서활동의 변화율과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활동의 초깃값은 시민의식의 초깃값에는 정적인 영향을, 시민의식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서활동의 변화율은 시민의식의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신념의 초깃값이 높을수록 독서활동과 시민의식의 초깃값이 높으며 독서활동의 초깃값의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초깃값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신념이 변화할수록 독서활동과 시민의식의 변화율도 증진되며, 독서활동이 변화할수록 시민의식의 변화율도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관계에서 독서활동의 매개효과도 검증한 결과, 성장신념의 초깃값과 시민의식의 초깃값의 사이에서 독서활동 초깃값은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고, 성장신념의 초깃값과 변화율과 시민의식의 변화율 사이에서 독서활동의 변화율도 부분매개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이로 볼 때, 공교육 차원에서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을 높이려는 시도와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

으로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의 변화율을 증진하는데 독서활동이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나.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적인 학교 풍토로 인하여 학생이 지니는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은 우선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독서활동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김가을하늘(2017)에서는 독서 프로그램이 치유와 자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희용(2015)에서도 학생의 성장을 돕는 독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이수호(2014), 이승복(1999), 남태우·이원지(2015), 이영림(2008) 등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독서활동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독서 활동이 추가 되는 국어 수업에서는 중학생의 긍정적인 성장신념과 바람직한 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교육적 활동이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지역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사회, 학교, 가정에서 중학생들이 성적이나 지능으로 인하여 이들의 성장신념이나 시민의식이 간과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성장신념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잠재 가능성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와 인간의 보편 가치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 사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와 책임 의식이 강조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의 이념이자 본질인 중학생의 성장신념과 시민의식에 주목하여 독서활동과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가 GEPS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인하여 주요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이 많지 않아

면밀한 분석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 기대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곽미정·문신용(2010). 시민의식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봉사활동의 동기, 진로성숙도, 학업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8(2). 111-141.
- 곽병선 외 12(1993). *민주시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권미나·이진숙(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그릿, 학업열의, 스마트폰 의존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및 성별에 따른 다중집단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29~44.
- 김가을하늘(2017). 치유와 자기 성장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김성훈(2017).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요인 탐색. *교육연구*. 70. 143-167.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희(2020). 중학생의 자율활동경험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549-566.
- 남태우·이원지(2015). 자아실현을 위한 발달적 독서치료의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321-346.
- 류재준(2018). 그릿, 자기결정성, 성장신념의 관계에서 생애목표의 조절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병상(2013). 청소년들의 지능변화신념의 종단적 변화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4). 85-890.
- 민수빈·박해인·김이경(2019). 중학교 학생의 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6(3). 117~139.
- 오길주(2019). 독서교육에서의 그릿(GRIT) 고찰. *독서아카고라연구*. 1. 227-251.
- 우명숙(2020). 경기도 혁신학교 중학생의 교육적 성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641~663.
- 이수호(2014).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승복(1999). '점수따기'식 독서교육은 오히려 성장 장애. 출판저널. 263. 9.
- 이영림(2008). 독서치료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정혜원(2019).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와 시민의식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중등교육연구*. 67(1). 67-93. 9.
- 임성관(2016). 쉼터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한 독서 심리 코칭 프로그램 사례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4). 251-279.
- 황윤주(2001). 시민교육 학습자의 참여동기 유형과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A. L., Li, F., & Alpo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weck, C.S. (2000).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Dweck, C., & Leggett, E. (1988). A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2), 256-273.
- Ross Alistair(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3). 28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Abstract

# A longitudinal analysis on Growth Belief, Reading Activities, and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ji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growth belief, reading activities, and citizenship of 1st to 3rd graders in middle school change, and to clarify the longitudinal structure between the variables, using data from the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In order to conduct this, the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were used and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confirm the influence over tim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having analyz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growth beliefs, reading activities, and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the average value of all three variables decreased as time passed,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non-change model and the linear change model of Gyeonggi-do middle school students' growth beliefs, reading activities, and citizenship, it was discovered that the linear change model for all three variables was more suitable for the data.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longitudinal changes in growth beliefs, reading activities, and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the fitness index was all found to be at a sound level. Furthermore, reading activities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belief and citizenship.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the trend of middle school students' growth beliefs and citizenship and that diverse reading activities

---

\* Kyungnam University, an Assisstant Professor of Korean Lanuage education.

and educational support are required.

**Keywords** : growth belief, reading activities, citizenship,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GEPS

투고일 : 2020. 11. 27. 심사일 : 2020. 12. 20. 게재확정일 : 2020. 12. 24.